

# 디스플레이

## 태블릿 PC 트렌드 - 낮아지는 가격, 올라가는 해상도

2013. 6. 13

디스플레이  
Analyst 전병기  
02.3779-8425  
bk.jeon@etrade.co.kr

### 태블릿 PC 제조업체들, 가격하락 압박에도 해상도는 포기 못해

(사례 1) 대학생 김 군은 태블릿 PC를 장만하려 한다. 와이파이(Wi-Fi) 존이 잘 구축되어 있는 요즘, 굳이 이동통신사를 끼고 구매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통신료가 절약되는 대신 이동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약정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해 태블릿 PC의 가격을 모두 스스로 지불해야 한다. 가격에 민감해질 수 밖에 없다.

(사례 2) 직장인 송 씨는 웹서핑이나 동영상 시청을 목적으로 태블릿 PC를 구매했다. 단순히 콘텐츠 소비 용도로 사용할 것이었기 때문에 고(高)스펙의 제품은 필요 없었지만 해상도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다.

### 수요로부터 시작되는 Tablet PC의 전반적인 가격하락

중국의 화이트박스로 대변되던 저가(低價) 태블릿 PC가 브랜드 제품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태블릿 PC 시장에서 맥을 못 추던 글로벌 PC업체들이 올해 상반기에 \$150~\$250 수준의 태블릿 PC를 출시하면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Acer의 '아이코니아 B1'과 Asus의 '넥서스7' 등 중/저가형 태블릿 PC가 글로벌 소비자들에게 어필되고 있는 것이다. 저가형 모델의 출시뿐만 아니라 기존의 하이엔드급 제품들도 가격이 하락하거나 동일 가격에 더 높은 스펙으로 출시되면서 전반적인 가격하락이 이루어지고 있다.

### 200PPI 이상의 고해상도 패널, 국내 패널업체들의 텃밭

태블릿 PC의 전반적인 가격하락과 함께 AP(Application Processor), 메모리, 배터리, 두께와 무게 등의 하드웨어 스펙은 비교적 소폭상향 내지는 정체되고 있다. 하지만 디스플레이는 예외다. 150~200PPI 수준이 주류였던 태블릿 PC의 해상도는 올해 200PPI 이상이 주류를 이룰 전망이다. 올해 하반기 주요 태블릿 PC 제조업체들의 신제품 라인업을 살펴보면 애플의 아이패드뿐만 아니라 아이패드미니를 비롯한 주요 태블릿 PC들이 레티나급(300PPI 이상)의 패널을 채용할 전망이다. 대만/중국 패널 업체들과 경쟁이 치열한 TV 패널 시장과는 달리 고해상도(200PPI 이상)의 태블릿 PC 패널 시장은 기술력이 뛰어난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가 압도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태블릿 PC의 고해상도 패널 채용 증가는 올해 하반기 국내 패널업체들의 수익성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표1] 주요 태블릿 제조사들의 주요 제품 라인업

Brand	Model	Size	Resolution	PPI	Model	Size	Resolution	PPI
	iPad mini	7.9	1024x768	162	iPad mini II	7.9	2048x1536	324
	iPad 2	9.7	1024x768	132				
	iPad 4	9.7	2048x1536	264				
	Nexus 7	7	1280x800	216	Nexus 7 II	7	1920x1200	323
	Nexus 10	10.1	1560x1600	221				
	Kindle Fire HD	7	1280x800	216	Kindle Fire HD II	7	1920x1200	323
	Kindle Fire 8.9 HD	8.9	1920x1200	254	Kindle Fire 8.9 HD II	8.9	2560x1600	339
	NOOK	7	1024x600	170	Nook HD II			Above 300
	NOOK HD	7	1440x900	243				
	NOOK HD+	9	1920x1280	256				

2012년

2013년 신모델(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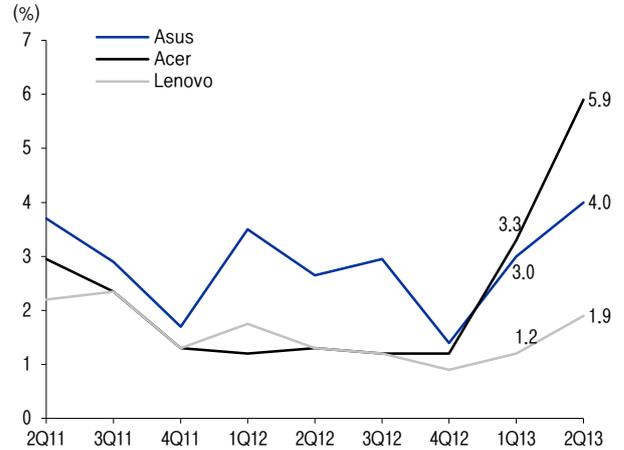
자료: IHS,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1] Acer의 저가형 태블릿 PC '아이코니아 B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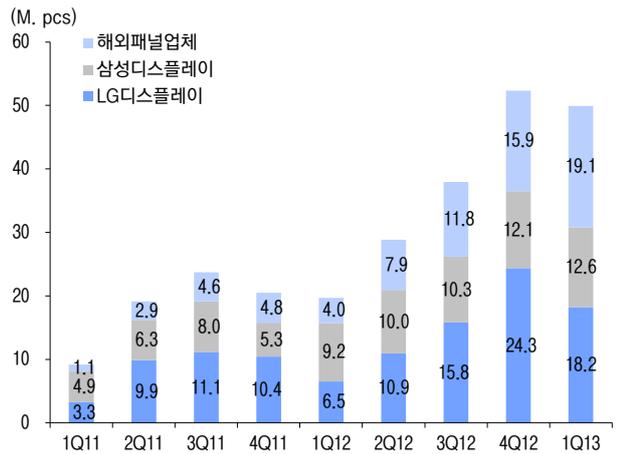
자료: Acer,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PC제조업체들의 태블릿 PC 시장 점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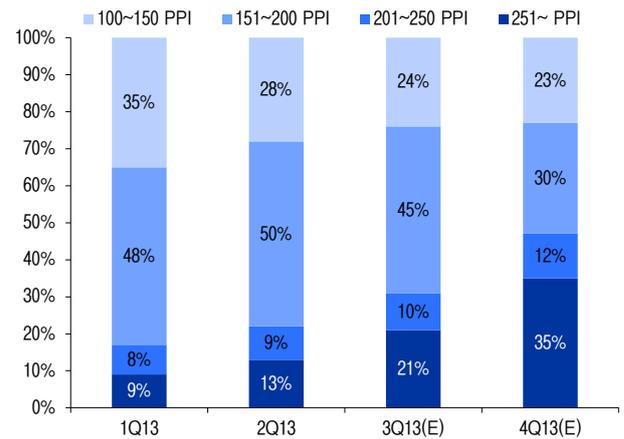
자료: DisplayBank,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태블릿 PC 패널 출하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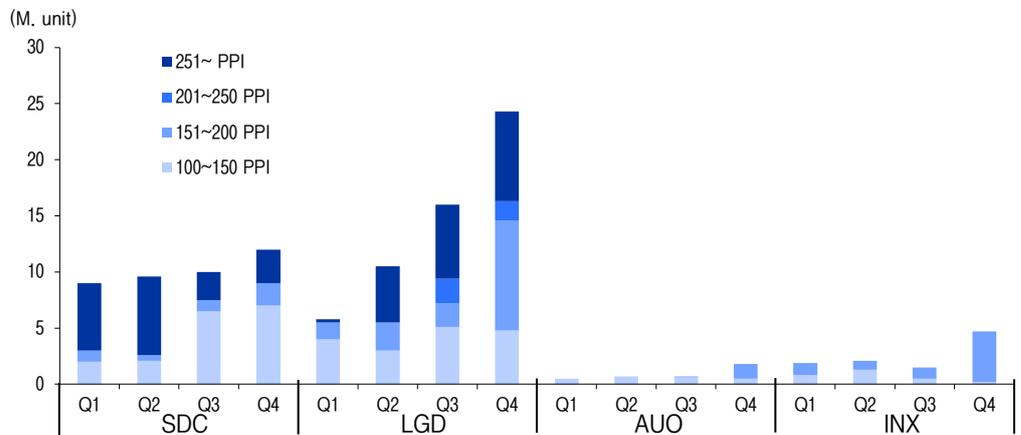
자료: DisplayBank,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PPI별 태블릿 PC 패널 비중



자료: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그림5] 2012년 태블릿 PC 패널 출하량 추이 (업체별, PPI별)



자료: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본부

##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전병기)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종목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

업종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6~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 (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

2012년 5월 14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Buy/ Hold/ Sell)에서 4단계 (Strong Buy/ Buy/ Marketperform/ Sell)로 변경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